

‘아내 살인 무죄’라도... “보험금은 안돼”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대법원 “살인 혐의 무죄·치사 혐의 유죄”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남편이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지난 13일 A씨와 딸이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남편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인이었던 아내 B씨가 당시 한국의 보험제도가 계약 체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아내 B씨가 사망했다.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을 들었고, B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사고라고 의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별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는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에 왔던 B씨가 해당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보험자 란에 서명했다고 보고, 라이나생명보험 측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와 같은 사람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언제라도 도박보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엔데믹, 여유로운 제주 해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이는 처음 거리두기 규제가 시작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평택화재 소방관 순직사고 ‘가연성가스 폭발’ 원인”

소방청, 평택 물류창고 화재 민관합동 조사결과

지난 1월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공장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은 가연성 가스의 급격한 폭발과 다량의 연기로 고립돼 탈출 방향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지난달 15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한 민·관합동중앙조사단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외부 기관의 전문조사관, 변호사, 소방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했다.

조사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순직대원 모두 의학적 사인을 ‘화재사(火災死)’로 결론 냈다.

화재는 지난 1월5일 오후 11시46분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립리 방동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단은 당시 화재 현장 2층에서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연성 가스가 분포돼 있는 모든 연기 영역에서 급격히 연소(폭발)하는 현상으로, 외국에서는 일명 ‘히든 킬러(Hidden Killer)’라고 부른다. 이는 순직대원과 함께 작업하다가 긴급히 탈출해 목숨을 구한 구조대원 2명이 진술한 사고 당시의 상황과도 유사하다.

조사단은 “3명의 순직대원들이 급격한 연소확산과 다량의 연연이 발생

하는 상황에서 패닉이 발생해 탈출 방향을 잃고 고립됐을 것”이라며 “이때 출입구 가까이 있던 2명의 생존대원은 소방호스를 따라 앞뒤로 탈출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또 당시 송탄소방서 지휘부는 화재가 잔불 정리에 들어갈 수 있는 소강 상태가 됐다고 판단해 내부 진입 활동을 하도록 했지만, 2층의 바닥으로부터 10m가 넘는 상층부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연소 현상까지 예측하지는 못한 것으로 봤다.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상황을 모사한 재현실험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1층 부분의 화재가 소강 상태가 돼도 2층에서는 순차적으로 최상기에 도달하는 양상이 관찰됐다. 일부 구획실에서는 다량의 연소가 되지 않은 가스가 축적되면서 산소 농도가 낮아졌고, 한 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해 화재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다량의 우레탄폼 내장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는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가연성 분해가스를 다량으로 방출하며 폭발처럼 순간적인 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번 재현실험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기존 연구 사례가 희소해 보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부여한 실험을 반복 실시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른

순직사고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내놨다. 현장지휘관이 다양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위험예지능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휘관 자격 인증과정’을 신설하고, 이런 자격인증을 받은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휘대장과 소방서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전문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지휘역량강화센터는 현재 3곳에서 9곳으로 늘린다.

전국 소방관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각 개인별로 교육실적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소방보건)’을 운영한다. 역량을 갖춘 경우만 승진 대상자가 되도록 ‘경력개발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또 첨단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한 생명구조 장비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소방대원의 호흡, 맥박, 움직임 등 생체 신호를 실시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고, 위험 현장에는 가연성가스 탐지 로봇이나 장갑차형 소방차 등 특수방호형 장비를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아울러 냉동창고 등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한 건물은 작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물 특성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성능위주 설계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 대한 별도의 화재안전기준도 제정한다.

이후 소방청장은 “동료들이 안타깝게 순직한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기법 개발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이 “보험자인 A씨도 모국어로 된 약관을 제시하거나 통역을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인 B씨의 진정한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와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A씨 등이 삼성생명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A씨와 딸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사건 역시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B씨가 피보험자로 돼 있었다.

A씨는 교보생명보험과 흥국화재보험 등을 상대로도 별건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한 보험만 25개를 가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환기자



나주경찰, 다문화 이주여성과 간담회 개최

나주경찰서장(총경 김선우)은 지난 12일 나주시가족센터를 방문, 센터장(하양진) 등 직원 및 이주여성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중마119안전센터, 펠름스 대원 역량 강화 교육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센터장 정용선)는 13일 펠름스 탐소 대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양=심종섭기자



담양소방, U-안심콜 대상자 야광문패 부착 추진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불철 화재예방 특수시책 일환으로 오는 5월까지 담양·곡성군 U-안심콜 가입 30가구 대상 위급상황에 신속한 출동을 위해 ‘U-안심콜’야광문패를 제작해 부착 중이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동부소방, 소방유물 수집·기증운동 함께해요

광주 동부소방서는 2024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국립소방박물관의 전시 운영과 소방의 역사적 자료 보존 및 연구를 위해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운동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 남부소방, ‘간이구조급함’ 점검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관내 제석산과 분적산 등산로에 설치된 간이구조급함을 산행 중 위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나섰다

최이슬기자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의 봄 야생화 관찰 기획프로그램 운영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봄철을 맞이하여, 지리산국립공원 야고산대 노고단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 관찰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